미소원 아빠들 집수리 봉사 '구슬땀'

부산 진구 개금동 일대서
소외이웃 주거환경 개선
개금동 일대 6가구 방문
전기 도배 등 전문 실력
'도반 화합' 봉사 원동력



사단법인 미소원 아빠봉사단이 4월 23일 부산 진구 개금동 일대에서 차상위 계층 및 장애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미소원 아빠봉사단(단장 장정화 · 이하 아빠봉사단)이 4월 23일 부산 진구 개금동 일대에서 차상위 계층 및 장애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아빠봉사단은 소외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능 봉사하는 불자 중년 남성들의 모임이며, 매월 2째주 일요일 부산 동구에서 장애인 가정 및 독거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활동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개금동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봉사 지역을 확장해 널리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정한 환경개선 지원 가구는 6가구이며, 대부분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지원 가구 중에는 세대주가 지적장애 경계선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우며 자녀 6명과 배우자가 함께 매우 협소한 집에 거주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 만86세 어르신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은 벽과 바닥 장판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었고 문턱 발판이 높아 어르신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힘겨운 상황이었다.

아빠 봉사단은 각 가구를 방문해 도배와 청소, 누수 공사, 창문틀 교체 등을 실시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수리 활동에서 필요한 경비는 사단법인 미소원의 후원과 아빠봉사단 회원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진행됐으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이 특별후원금 100만 원을 지원해 훈훈함을 더하는 등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다.

장정화 단장은 "창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손발을 맞춰오니 이제 눈만 마주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봉사한다"며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 화합하고 만남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 또 봉사를 하고 나면 보람을 느껴 모두가 바쁜 가운데서도 집수리 봉사를 나오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 회원들 대부분이 결핵병원 봉사 등 미소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가해 자비 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만나면 진실한 도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집에 있는 전기등을 교체하려고 해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장애가정이나 독거어르신들은 도움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격려했다.

불자 군종지원부사관 연수 입재식 개최

4월 25일, 부산 금련사 대웅전서


4월 25일 부산 금련사 대웅전에서 육군 군종지원부사관을 대상으로 연수 입재식이 봉행됐다.

4월 25일 부산 금련사 대웅전에서 육군 군종지원부사관을 대상으로 연수 입재식이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군종지원부사관을 격려하고 군사찰 중심의 신행활동 강화 및 군종교구와 소속감, 유대감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연수는 4월 25일부터 28일 총 4일간의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군포교 활성화 방안 토의, 쿠무다 명상센터 방문, 역량증진 세미나, 통도사 순례, 명상법강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재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격려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교구장 세봉 스님과 군승 포교국 국장 경진 법사를 비롯해 군종지원 부사관이 함께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세봉 스님은 "불교를 기계에 비유하자면 윤활유와 같다. 윤활유는 마찰이 일어나는 곳에 열을 식히고 부품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 불교도 이와같이 힘들고 부딪히는 순간에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힘과 지혜가 생기게 된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도 병사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키우시기 바란다"며 격려사를 전했다.

군승 포교국 국장 경진 법사는 "예전 대위로 근무할 때 타종교는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서 불교는 왜 이런 자리가 없을까 하며 아쉬워한 적이 많았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4월 24일~26일, 3일간 봉행


통도사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내 설법전 및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7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내 설법전 및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7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통도사는 매년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며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산조 자장율사의 계율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보살계 전계아사리는 덕문 스님이 갈마아사리는 前 통도사 강주 현진 스님이, 교수아사리는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이 맡았으며, 7증사는 천진 스님, 우진 스님, 증도 스님, 심산 스님, 종현 스님, 도암 스님, 영산 스님이 증명했다.

회향식에서 통도사는 35회 동참자 법운영 불자와 25회 동참자 여래장 불자에게 성만패를 수여했으며, 20회 수계자 5명, 15회 수계자 11명, 10회 수계자 14명에게는 기념 메달을 전달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수계는 계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말인 지계는 지고 이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계에서 비롯됐다"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겨 계를 지키고 정진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계율은 현대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며 "오늘 계를 받기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회향식에서 통도사는 수행정진을 당부하며 장학금 29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쌍계사, 계묘년 보살계 법회 회향



1200년전 진감국사가 창건한 이래 육조 혜능 스님의 법맥과 해동계맥, 청나라에서 전래된 중국계맥 등 양대계맥을 이어온 계율근본도량 조계종 13교구 쌍계사가 제48회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4월 24일 팔영루에서의 입재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3일간 쌍계사 대웅전, 팔영루, 금당에서 봉행된 보살계 대법회는 26일 대웅전에서의 수계법회에 이어 금당에서의 육조종재와 상공, 천도재를 마지막으로 회향됐다.

이날 법회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전계대화상 덕민 스님, 문수암 이암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불지사 정인 스님, 유나 종성 스님, 혜원정사 원허 스님, 승가대학장 대각 스님, 칠불사 도응 스님, 용문사 승원 스님, 평안사 지현 스님, 운흥사 월암 스님을 비롯한 쌍계사 본말사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전계 아사리 덕민 스님을 비롯한 3사 7증 스님들의 증명으로 봉행된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덕민 스님은 십중대계와 보살 48경구계를 설했다.

덕민 스님은 "쌍계사는 동산율사, 석암율사, 고산율사의 계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청정계율을 한평생 실천하신 스승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계율근본도량 쌍계사를 잘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겁외사 · 백련문도, 연합 방생법회 봉행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신 퇴옹당 성철 대종사의 생가터에 건립된 겁외사에서 백련문도 연합방생법회가 4년만에 봉행됐다.

산청 겁외사 대웅전과 인근 경호강에서 봉행된 백련문도 연합방생법회에는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 정심사 원영 스님, 정인사 원행 스님, 해인사 원타 스님, 겁외사 주지 일학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백련문도회 전국사찰 임원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면불 옆에 성철 스님께서 지난 1989년 3월1일 종교인연합회에서 법문하신 '통일을 바라며' 라는 글이 있다"며 "여기 방생하시러 오신 불자들이 가슴에 담아 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근 경호강으로 이동한 사부대중은 방생의식을 봉행하고 치어 2000마리를 방생했다.

백련문도의 연합방생법회는 성철 스님 열반 이듬해인 1994년부터 매년 음력 3월 7일 봉행되어 왔다.

겁외사가 창건된 2001년부터는 겁외사 인근 경호강에서 백련문도 연합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3일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를 앞두고 있어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범내산 관음사, 산신재 나눔잔치

4월 22일 쌀 1080kg 전달



부산 범내산 관음사(주지 천웅)가 4월 22일 경내 대웅전 옆 마당에서 '산신재 및 행복쌀 나눔잔치'를 봉행했다.

이번 산신재를 통해 관음사는 지역민들의 안녕과 국운융창을 발원했으며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80kg을 범천2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천웅 스님은 "제가 이곳에 온 첫해에 초라하게 시작한 산신재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모두 부처님과 산신님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부처님 가르침 실천도량이 되고자 한다"며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 정토사, 울산 음식 귀환 연고례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4월 24일 임진왜란 때 일본에 전해진 울산음식에 대한 기원 설명회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전해진 음식의 귀환연고례를 임란공신 의병장 56위의 위패가 모셔진 창표사에서 개최했다.

일본과 부산, 울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울산지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일본음식을 진설하고 잘못된 전쟁을 반성하고 격전지였던 울산지역에 다시는 전쟁없는 평화의 도시를 기원했다.

울산 정토사가 주관하고 부산한일문화연구소(소장 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정토사 주지스님 인사, 김문길 교수의 일본에서 전래된 음식 소개, 일본 대표 감사 인사, 일본귀환음식 시식, 서생포 왜성 참관의 순으로 진행됐다.

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400여 년 전 무지와 탐욕에 의한 전쟁으로 인해 조선의 문물과 기술이 일본으로 전해져 대를 이어온 일본식품의 고향 방문이 울산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식품 음식류 귀환행사로 한일 시민들이 슬픈 과거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좋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길 소장은 일본에 전래된 음식을 설명하며 "일본인이 건강식 자연미라고 하는 적미(赤米)와 적주(赤酒)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간 볍씨에서 유래한다. 가토 기요마사가 환국할 때 적미 재배와 적주 제조법을 전래시켜 오늘날 일본인들이 조선술이라 하며 적주를 즐겨 마시고 있다"고 했다.

일본과자 센베이에 대해서는 당시 의병들은 비상식량으로 떡을 얇게 썰어 말려 먹었는데 이를 본 왜장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비상 음식으로 만들어 먹고 '센베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돌잔치 때 센베이를 들면 용장 가토 기요마사가 된다면서 반드시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만 먹은 사탕도 있는데 이 사탕도 돌찬치에 빠지지 않는 명물 과자로 과자봉지에 '울산 사탕'이라고 유래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벽선암, 산신각 이운 점안식

4월 23일, 땅설법 의례 진행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이 4월 23일 경내에서 산신각 이운 점안식을 봉행했다.

산신각 이운 점안법회는 땅설법 전승자 삼척 안정사 다여 스님의 땅설법 의례로 진행됐다. 땅설법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하는 교리 학습지도법으로 알려져있다.

주지 혜진 스님은 "땅설법은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에 선정된 불교의례이다. 다여 스님은 땅설법 전승자이며 오늘 의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며 "불자들이 환희심을 가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북바람' 공연

5월 3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BBS(사장 수불)는 5월 3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을 위한 '북바람'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BBS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유치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것으로, 미디어 아트와 한국 전통음악,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모듬북 공연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매력을 재확인하고자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드림타'의 타악앙상블과 '생동감크루'의 LED댄스, '타고'의 모듬북 공연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051)797-511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성주사, 설법전 개보수불사 회향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4월 20일 전면 개보수 공사를 마친 설법전에서 회향법회 및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점안의식은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석봉 스님을 비롯한 불모산 영산재 스님들의 집전으로 불교전통방식으로 봉행됐다.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는 지혜의 바다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일체가 좌우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